

# 교회소식

1. 신년 주일입니다.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2020년 신앙생활 표어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빌립보서 4:6)입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3. 다음 주는 제직 주일로 지킵니다. 제직은 집사를 포함한 교회 안의 향존 직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4. 전교인 야외 예배가 오는 2월 8일(월)에 각 공동체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와 자세한 사항은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5. 이번 주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6. 다음 주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의논하고 계획안을 17일(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와 달력 여분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지난 청소년,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 유니폼을 기증하고, 성탄 전야제에 바비큐용 고기를 제공한 성도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9. 아동부를 섬길 김양이 전도사님이 부임하였습니다.  
가족: 夫 김효성 집사 子 환희, 재희, 준희
10. 새 교우 등록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창순 성도  
96 Symonds St, City 021-092-5278 4여선교회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JANUARY

### 교회사역일지

1월 3일(주일)  
신년주일  
1월 22일(금)  
금요일 기도회  
1월 24일(주일)  
권사 기도회

### 기도순서

1월 10일 (주일)  
이정인 집사  
1월 13일 (수)  
가정 예배  
1월 17일 (주일)  
김병진 목사  
1월 20일 (수)  
강동호 집사

###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병진, 김명춘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신년주일

23권 01호 2021.01.03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청년부	2:00 pm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기도	7:00 pm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이사야 60:1-3	인도자
*찬 송	64장	다함께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84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손조훈 집사
성 경 봉 독	<b>빌립보서 4:6, 시편 118:28</b>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비추소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b>오직 기도와 말씀으로</b>	이태한 목사
찬 송	364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추 대 식		집례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응 답 송	171장 (1절)	다함께
*축 도		이태한 목사

\*는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4면 교회소식란 참고).

2020년 12월 2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출애굽기 3:4-12

사람은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필요로 할 때 진정한 존재가치를 발견하며 살 소망이 생기기 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고개를 떨구고 낙심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3:11):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겸손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삶의 의욕을 상실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한탄과 실의에 빠져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고후 5:17)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2)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를 내려놓게 됩니다(3:5):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신을 벗는 것은 독충과 열기로 인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며 더러워진 신을 벗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시 103:12)는 말씀을 붙잡고 옛 애굽을 끊어 버리고 과거의 일로 교만도 낙심도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부정적으로 사는 대신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빌 3:12).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신앙인입니다. 실패와 죄악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과거의 신발을 벗어 버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3)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을 주십니다(3:9):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정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변명만 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일꾼이나 자재 등을 주지 않았어도 노아가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능력 없고 일하기 싫어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려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무 일도 안 시키실 때 오히려 우리가 비참해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빌 3:14).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히 11:26).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3:12)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3:10)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민 34:10)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의 실체를 깨닫고 과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상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갈보리 교회 온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